

# 직장불자회 소식지로 포교

## 10여곳서 발행...친목교류·회원확보 큰 도움

### 한전반야회 홈페이지 운영

직장직능 불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들이 당회 홍보는 물론 회원 배가에 특효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소식지를 펴내고 있는 직장직능불자회는 부산불교청년산악회, 부산경남연동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등 10여 곳. 한전반야회는 홈페이지로 소식지를 대신하고 있다.

소식지는 대부분 활동보고 및 회원근황, 큰스님 법어, 부처님말씀 등과 사진을 곁들여 불자회를 소개하고 있다. 작게는 8쪽에서 소실집 1권 분량에 달하는 300쪽 안팎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소식지는 불자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회원 수를 배가하는 효과가 뛰어나 불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다. 회원간 친목교류는 물론 회원간 협동 광고 및 영업전략에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부산불교청년산악회(회장 김경관)는 (정신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소식지 발간이래 회원 수가 60여명에서 1



◇직장직능불자회 소식지

백1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산불교청년산악회는 '정신에 드는 사람들'을 계간지로 정례화하고 A4크기 8면으로 발행하던 것을 수첩크기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사내(社內)에 홈페이지를 개설, LAN을 통해 900여개 전국사업소에 불자회를 홍보하고 있는 한전반야회(회장 김영창)는 홈페이지 개설 이후 2백여명의 회원이 추가 가입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한전반야회 홈페이지는 반야회 안내, 알림방, 불교공부방, 자료방, 대화방 등 5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한전반야회 이순형 사무국장(원자력건설처 계속제어팀 부장)은 "하루 평균 20~30여명이 방문하는 반야회홈페이지는 반야회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 '실용적 불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젊은 불자친원들의 포교전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반야회는 동화상 법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연동회(회장 사상호)도 지난해 11월부터 (새 연동)을 발간, 실직자 쉼터운영 및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활동을 알리고 회원불자들의 실행활동을 이끌어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10년전부터 1년에 두번 기관지(실상문학)를 발간하고 있는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최낙현)는 불자문인들에 한정하지 않고 타종교 문인들의 작품을 (실상문학)에 실어 정서적 교감을 갖는 등 타종교 문인들까지 회원을 늘리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제주중앙클럽, 금강메이리산악회, 충북예비역불자회 등이 소식지를 홍보와 회원배가에 활용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 해젯날 길 떠나며 "성불하십시오"



###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15 · <괄>

(지난 호에 이어)

"물론이지요. 인간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수 있고 인간의 조건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완성을 위해 선(禪)을 내세웠고 인간은 선을 통하여 완성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선은 신비가 아니고 절대자의 조종을 받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인간완성을 위한 길입니다. 즉 열반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완성을 열반에 귀결시키는데 그렇다면 열반은 현실태(現實態)입니까? 가능태(可能態)입니까?"

"실존주의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실태(現實態)로 있는 것이지 가능태(可能態)로 있는 것은 없다' 즉 일원론적인 현실인 현실 밖에 없다고 하면서 현상 뒤의 어떤 실재, 어떤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은 잠꼬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인간이 완성될 수 있는 길을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함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생명이 단절된 죽음의 저편에 따로 존재하는 세계를 말함이 아니고 부조리하고 무분별한 실재(백발번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초월시킨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無)의 인식에서 반야를 밝히는 힘이 열반인 것입니다. 이 무어열반(無餘涅槃)은 아집의 색상(色相)에서 해방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제(眞諦)는 열반이고 속제(俗諦)는 유무(有無)입니다. 유무에 얽매임은 현실적인 생각이다. 열반에 들어옴은 영계에 의해 해탈된 것입니다. 열반이란 신(神)없는 신의 세계이며 시어(施與)함이 없는 신의 시어 라고 하더라도 말했 습니다. 신없는 세계의 신, 이것은 곧 완성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주는 자 없이 주어지는 것은 완성된 인간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인간이 곧 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가능했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신이 창조되고 군림했던 게 아닐까요?"

"정지정능하다는 신을 동경하고 메시아 제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시일이 머리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은 자유없는 폭주각시에 불과합니다. 절대자의 괴뢰, 신의 노예, 그러한 천국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통스러워도 자유로운 지옥을 택하겠습니다. 그러한 천국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도망쳐 나와 끝없는 업고의 길을 배회하겠습니다."

"극히 인간적이군요."

"불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衆生)으로 시작해서 인간(道人)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발번뇌의 인간이 초월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닦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니까요."

"좀 더 화두에 충실해야 하겠군요."

"그렇지요. 순간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찌 순간인들 화두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두를

놓으면 중생이요, 화두를 잡고 있는 한 열반의 길에 서 있는데..."

저녁 공양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걸어가지만 선객은 내심 그렇게도 무서운 절박감 속에서 살아간다.

### 11월 15일 회자정리

해젯날이다. 새벽 두시다. 모두들 들뜬 기분이어서 별책들 일어났다. 도량석을 하는 지전스님의 염불소리가 무척이나 청아하다. 산울림도 청아하다. 신라 대종이 울린다. 무겁고도 은은하다. 산울림도 은은하다. 아침 공양이 끝나자 곧 조실스님의 해제



그림·이준석

## 열반은 신없는 세계의 神 '완성된 인간' 불교는 중생으로 시작 도인으로 끝나

법문이 시작되었다. 법상에 앉아 주장자를 짚은 조실스님은 언제나처럼 자비롭다. "일즉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空 空即色)은 불교의 중도를 표현한 극치다. 중도란 가치의 변증법적인 종합이요 통일이다. 대소(大小)와 고저(高低)의 가치를 분간하여 자타(自他)를 넘어서 크고 높을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여기에 대승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양극에 부딪쳐 상극분리(相離分離)에 그치지 않고 더 높고 큰 가치에로 지양종합(止揚綜合)하여 나아간다. 중도란 단순한 중간이나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궁무진한 불교의 정신에서 다즉일(多即一)의 진리를 신앙하는 데 그 본의가 있다. 일즉다(一即多)이다. 법문의 요지다. 불교의 중도는 역(易)의 태극(太極)이나 자사(子思)의 중용(中庸)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도 상통한다. 상극의 초극이야말로 진실로 인간의 가장 근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비로소 인

합합니다. 권태와 나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서입니다. 나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나태의 온상같은 토굴로 들어가서 권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권태의 표본같은 기계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권성은 대중처소에서보다 토굴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도 지객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저는 남방으로 가렵니다. 그리고 선방으로 가렵니다.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탐미(琢磨)가 필요했고 권태로울 때는 뒷방이 필요했습니다. 뒷방을 틀어다 볼 때마다 공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월정사 층층계 밑에서 헤어졌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남방행인 그 스님은 월정사로 들어갔고 나는 월정사를 뒤로 한 채 강릉을 향해 계속 걸어 나아갔다.

## "국민화합·불국토 건설" 다짐

### 부·경 연동회 1돌...사부대중 1천여명 참석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동회(회장 사상호)는 9일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대화합'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성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다정 백양사 주지를 비롯해 박상규 연동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사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간, 계층간 화합을 통해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꾸준한 보살행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중생들이 곧 부처인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로 화합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라며 대중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부산경남연동회는 이날 불광사 주지 종학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신라대 입구선, 파라미타 황은이 추재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실직자 쉼터인 연동회생활관 관장에 생계사 총무 박광스님을 임명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 우리 모임에선

#### 산악인연 단합대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순현수)는 10~11일 인동총문사에서 '전국 단위 산악회 회장단 및 중앙회 이사단 합동 춘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에서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1차 면담 내용을 근거로 종단관계 재인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무원에 재차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또 연동행사도 1천5백~2천여명의 단위 산악회 회원들이 참여해 산악회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여성산악인의 참여와 조직관리를 위한 여성부회장단 결성을 추진, 빠른 시일 내에 여성부 회장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 전통차정비창 성지순례

전통차정비창법우회(회장 이일성)는 24일 해인사 성지순례를 떠났다.

#### 문화예술인 청계산 산행

한국문화예술인법회(회장 김홍우 동국대교수)는 25일 청계산 산행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산행에서는 청계산 내 사찰을 참배하고 기호련, 마술 등을 배울 예정이다.

## 직장직능 대표자회의 6월 19~20일 서울서 개최

직장직능 실행단체 대표자 회의 준비실무위원회는 1차 회의를 9일 열고 '직장직능 실행단체 대표자 대회'를 6월 19일~20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단체 회장 및 임원진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표자 대회는 큰스님 법문, 모범사례 발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방안 토론, 토론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직장직능 불자회 현황을 26일까지 1차 파악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감사원불자회 안홍부 김동연 감사관, 서울시 청불자회 조정봉 지도법사, 대안가수불자회 남궁수 회장, 포교한 관계자 등의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도필선 기자

## 직원 모집 공고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상구보리,하화종생>하라 하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 사회복지자를 통한 복지포교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로부터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게 되어 뜨거운 열정으로 노인복지보살에 동참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인원	자격요건
부장	1	경력4년이상 사회복지사급 자격증소지자
선임 사회복지사(과장)	1	경력4년이상 사회복지사급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사	6	사회복지사급 자격증소지자, PC가능자, 운전면허증소지자
총무과장	1	유경력자
간호사	1	간호사 및 조무사 자격증소지자, 운전면허증소지자
영양사	1	영양사 자격증소지자
경리	1	경리유경력자, PC가능자
사무원	2	PC가능자, 운전면허증소지자
보일러기사	1	열관리자격증소지자
생활보조원	1	PC가능자, 모욕교사,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유자
조리사	1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취사보조원	1	취사경력자
건물관리 및 미화원	1	유경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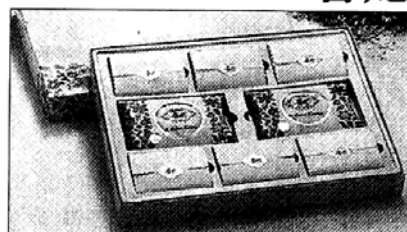
1. 제출서류: ① 이력서 (사진첨부) 1매 ② 자기소개서 1매 (A4 2장 이내)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졸업증명서 1통 ⑤ 자격증사본 1매 ⑥ 경력증명서 1매
2. 접수기간: 1999. 4. 12 ~ 1999. 4. 24 (09:00 ~ 17:00) 직접제출 및 우편시 24일 17시까지 도착
3.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면접일시는 서류심사후 추후 통보,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4. 근무처: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시립은평노인 종합복지관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인덕노인복지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 전화: 02-385-8205/6 전송 385-8207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활력이 솟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양음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퍼트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가 염마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품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굽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도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껴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의 현상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물이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기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괴마움을 느껴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해당되는 증상(○)이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생리통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생리기간이 불규칙하다
  7. 생리기간이 길거나 짧다
  8. 생리기간이 불규칙하다
  9. 생리기간이 길다
  10. 생리기간이 짧다
  11. 배나 복부 근력이 약하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두통이 자주 오는 편이다
  14. 생리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토고 같은 일이 있다
  15. 생리기간이 불규칙하다
  16. 목이 뻣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생리기간이 길다
  18. 생리기간이 짧다
-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